

## 연길 북산가두, 소방안전 선전활동 펼쳐



행복촌 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우련성

“오늘은 온 집안에 기쁨이 넘치는 날, 이 정도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나요? 허허허...”

백산시 정우현 경산진에 자리한 행복촌, 촌민 84.3%가 조선족인 이촌에서 3기째 촌당지부 서기를 역임하고 있는 한족 사위 우련성(于連成)이 기자들에게 조선어 노래 한소절을 자신있게 흥얼거리면서 말했다.

가족 이야기: 사랑으로 이룬 민족의 융합

우련성의 가족 이야기는 조선족 안해 리정순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어요.” 리정순은 당시를 떠올렸다. “부모님이 한족 사위는 절대 안된다며 강하게 반대하셨죠.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뛰든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들어서는 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이 워낙 세서 결국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 정말 맞나 봐요.”

결혼후 우련성은 조선족 가족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처음에 벼농사 하는 법도 몰랐지만 장인어른을 따라다니며 낫 쓰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웠어요. 조선어도 처음엔 한구절도 못했는데 귀를 열고 듣고 배우다 보니 이제는 조선어 노래까지 부를 수 있게 됐죠.”

이 한족 - 조선족 커플의 성공적인 결혼은 가족내에서 선례가 되었다. 리정순의 집에는 1남 6녀 일곱 형제자매가 있는데 그녀를 시작으로 다섯째, 여섯째 녀동생도 모두 한족 남성과 결혼하며 민족의 벽이 자연스럽게 무너졌다. 지금은 명절만 되면 40명에 가까운 친척이 모이는데 조선족과 한족이 반반이다.

촌민과의 이야기: 한그릇의 수제비에 담긴 촌민을 위한 마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한족이 어떻게 조선족촌의 서기가 될 수 있었는지, 소통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말이다. 하지만 그때면 우련성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제 안해가 조선족이고 오래동안 한마을에서 살아오면서 모두가 저를 알아주십니다.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불편함을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있는 일이다. 행복촌의 조선족 로인 방순녀가 병으로 누워 지내게 되어 병문안을 간 우련성은 그 광경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다. 하여 그는 안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어르신의 기분이 나아질까?’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방순녀로인이 평소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던 일이 떠올랐어요.” 리정순은 직접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물

다. 당시 우련성은 여러 경로를 통해 8만원의 치료비를 모아 그의 치료를 도왔다. 로인은 치료후 병세가 호전되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안 되었다. 우련성은 민정부문과 협의하고 촌민들을 조직하여 인력과 물적 도움을 제공해 리만일의 장례문제를 해결했다.

우련성과 촌민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는 민족을 넘어선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그의 일상적인 배려와 관심은 행복촌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으로 되었다.



음력설이면 근 40 명이 모이는 우련성네 가족

## 행복촌의 이야기: 촌민들의 치부와 안전을 책임지는 작은 실천들

우련성은 향촌 진흥의 핵심은 바로 산업이라는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다. 행복촌에서는 촌당지부가 인솔하는 1개 경제협작사를 설립하고 23호 농가의 700여戶 토지를 임대시켰다. 이를 통해 토지 임대 수익이 46만원에 달했으며 년간 1인당 소득은 8,000 원 이상에 이를 수 있었다. 또한 촌민들의 언어 우세를 이용하여 20명 촌민들이 한국으로로무를 가도록 협조했다. 이로 인해 1인당 년간 소득이 10만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촌집체경제도 년간 15만원을 넘게 되었다.

우련성의 리더십은 촌민들의 일상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서도 빛을 발했다. 촌민 방근주의 밭은 산중턱에 있었는데 능작물을 옮기려면 깊은 도량을 지나야 했다. 특히 봄에 씨앗을 뿌리고 기을에 수확할 때면 농기계와

수레가 통과하기 어려워 가파른 산길을 돌아가야만 했다. 이는 시간과 체력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커졌다.

우련성은 촌민위원회를 이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섰다.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후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도량 주변의 진입로를 정비했다. 이제는 농기계와 수레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豆에 따르면 다년간 우련성의 적극적인 행위로 행복촌은 점차 완비된 기반시설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거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210만원 자금을 정취해 700 미터에 달하는 흥수 방지벽과 800 미터에 달하는 아스

는 상황을 가정하여 뚜껑과 소방 담요를 활용한 진화 방법을 체험했고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바닥에 구르며 대피하는 방법, 소화기로 기름불을 진압하는 방법 등을 실전훈련을 통해 생생하게 배웠다. 장비 전시 코너에서는 소방관들이 다양한 소방장비의 기능과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단봉사회구역에서는 관련 단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소방소를 방문해 ‘생명을 좌우으로 하는 소방안전’을 주제로 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했다. 소방관들은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전기 및 빠리중 재해 상황을 예로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비상 대피 요령을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집중해서 경청했다.

실외 체험장은 분위기가 더욱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리 시 팬에 불이 붙

/ 리성복특약기자

## 연길 연준사회구역, 오대징기념관 방문학습



11월 9일은 제 34 번째 ‘전국 소방의 날’이다. 연길시 북산가두 여러 사회구역에서는 소방안전 상식을 널리 선전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며 소방안전 리념이 주민들의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교양활동을 펼쳤다.

단봉사회구역에서는 관련 단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소방소를 방문해 ‘생명을 좌우으로 하는 소방안전’을 주제로 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했다. 소방관들은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전기 및 빠리중 재해 상황을 예로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비상 대피 요령을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집중해서 경청했다.

실외 체험장은 분위기가 더욱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주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조리 시 팬에 불이 붙

/ 리성복특약기자

## 루가조선족향

## 촌민들이 직접 가꾸는 아름다운 고향

최근, 통화시 휴남현 루가조선족향은 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 청소, 주변 정리, 농경화’를 주제로 한 마을별 청소 활동을 진행했다. 당원간부들이 앞장서고 촌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의 경관을 새롭게 변모시켰다.

이번 행사는 마을 실정에 따라 주택 주변, 녹밭, 하천, 수로, 도로변 등 곳의 생활쓰레기 뿌리, 건축폐기물 방지 등 문제에 대해 ‘구역별 분담, 개인책임제, 형목별 해결’ 방식을 적용했다.

당원간부, 자원봉사자, 촌민들은 적극적으로 마당을 청소하고 쓰레기

/ 오건기자, 마자원 (馬志媛)



## 호응을 보였다.

이어 이민경찰들은 사회구역을 방문해 ‘변경 안전을 수호하고 함께 고향의 방어선을 구축하자’를 주제로 정책법규강좌를 진행, 알아듣기 쉬운 언어와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주민들의

호응을 보였다.

/ 정현관기자, 류명양 (刘明阳), 왕함 (王晗)

및 치안법규에 관한 선전책자들을 발급하고 사진을 찍어 위챗 모멘트에 공유하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좋아요’를 일정 수량 모으면 특별 제작된 기념품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뜨거운